**42-32호 2025년 8월 10일**

**교제와 나눔**

**\*\* 선교교회에 처음 나오신 형제 자매들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

**ㆍ다음 주일은 8월 나라주일입니다.**

**ㆍ9,10월호 매일성경이 도착했습니다.**

**ㆍ한국방문:** 최수정/율리안, 오지훈

**ㆍ생일축하:** 권순아

**ㆍ제 80주년 8.15 광복절 기념행사 및 민속놀이:** 8월 16일 (토) 10:00-19:00

Europaplatz 6, 44575 Castrop-Rauxel

**◆말씀일기 일정**

|  |  |  |  |
| --- | --- | --- | --- |
| 일/슥5:1-11 | 월/슥6:1-15 | 화/슥7:1-14 | 수/슥8:1-13 |
| 목/슥8:14-23 | 금/슥9:1-8 | 토/슥9:9-17 | 일/슥10:1-12  |

**◆114 운동-**하루**(1)** 한번**(1)** 말씀일기 & 성경 **(4)**장 통독

**성경 300독 대행진: 252독**

**◈ 예배위원 안내 ◈**

|  |  |  |  |  |
| --- | --- | --- | --- | --- |
|  | **8월 10일** | **8월 17일**  | **8월 24일** | **8월 31일** |
| **예배기도** | 양귀남 | 박종희 | 김수경 | 허지은 |
| **안내위원** | 예배부 |
| **봉헌위원** | 오지훈 단주현 |
| **애찬위원** | 밥상 여섯 | 밥상 일곱 | 밥상 하나 | 밥상 둘 |



 **“네 자신을 연단하라”**(딤전 4:7)

주일예배 11:45 Teestube 소망방

14:00 Mutterhauskirche

유초등부 14:00 Teestube 평화방

청소년부 14:00 Teestube 믿음방

청 년 부 15:30 Teestube 믿음방

토요기도회 07:00 Teestube 믿음방

선교성경아카데미(MBA): 누구든 어디서나

**담임/ 손교훈 목사** Pastor Dr. Kyo-Hoon Sohn

☏ 02131-5249 186 HP. 0176-5779 1004

**교육/ 이동훈 목사** HP. 01525-2367 629

**교육/** **박승은 목사** HP. 0157-3845 5550

**선교협력/ 이광열 목사** HP. 0157-7388 7498

1983년 5월8일 창립 **뒤셀도르프선교교회**

 **교회 홈페이지 duemission.de**

 **교회당 주소 Alte-Landstr. 179, 40489** **D****üsseldorf**

**주 일 예 배**

 **)**

**4.Advent)**

인도: 손교훈 목사

|  |  |
| --- | --- |
| ※입례송/Eingangslied ……….….… 왕이신 나의 하나님 ….………………..… | 다함께 |
| ※예배부름/Eingangsgebet …………..………...............……………………………….… | 인도자 |
| ※찬송/Gemeindelied …................................... 2장 ............................................... | 다함께 |
| ※신앙고백/Glaubensbekenntnis …….…………………………..…….......................... | 다함께 |
| 성시교독/Wechselwort ……….......... 교독문 60번 .……………...................... | 다함께 |
| 찬송/Gemeindelied …………...………...... 266장 ……..…………………..…...... | 다함께 |
| 기도/Gebet ............................................................................................................... | 양귀남집사 |
| 찬양/Chor ….................................. 복의 근원 강림하사 ……………….…..... | 찬양대 |
| 성경봉독/Text zur Predigt ……….. 스가랴 5:1-11 …….…….………………. | 인도자 |
| 설교/Predigt ................................ **성전 이전에 성결** ………………….…… | 손교훈목사 |
| 찬송/Gemeindelied .................................... 274장 …......................................... | 다함께 |
| 봉헌/Kollekte……..…………….…………………………………………….……………….. | 다함께 |
| 교제/Bekanntmachung……………………………………………...………..…….……... | 다함께 |
| ※주기도송/Vaterunser……...……………………………....……..…….………….….......... | 다함께 |
| ※축도/Segen …………………………………………………………..……............................ | 손교훈목사 |
|  |  |
| **※** 표는 일어섭니다. |  |
| **\*\*교회 구좌\*\***Ev. Presbyterianische Kirchengemeinde e.V. Bank: Stadtsparkasse Düsseldorf IBAN: DE61 3005 0110 1008 4019 01 일반계좌IBAN: DE49 3005 0110 3007 9500 29 선교관계좌 |  |
|  |

▶ **김영희 권사의 말씀일기 슥1:7-21 ‘내일을 향해 또’** ◀

1:12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칠십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지 70년이 되었다 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기에 질투하셨다.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배반하였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다.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할 필요가 없다. 사랑하기에 매를 드는 것이다. 우리도 자식을 나 자신보다 사랑하기에 자식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으면 매를 들고 벌을 준다. 그러나 다시 아픈 데를 감싸주며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해준다.

하나님은 나에게도 한없는 사랑을 주셨고 지금 이 시간 70평생이 있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나의 삶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외면할 때도 있었다. 그것은 나의 교만함이며, 말씀에 어긋나게 살기 때문이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찾으셨고 기다리셨다. 그리고 어느 순간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게 되었다. 지금도 어느 순간 사람과 주님 앞에 실수하며 부끄러울 때가 번번히 있다. 잘못을 인식했을 때 내가 실수를 범한 사람에게 그리고 주님께 용서를 빈다. 그 길밖에 없다. 그리고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부터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것을 기도하며 내일을 향해 또 기대해 본다. 아멘.

 ▶**지난 주** **봉헌 내역(8월 3일-8월 9일)**◀

|  |  |  |  |
| --- | --- | --- | --- |
|  **십일조** | **월정헌금**  | **감사헌금** |  **목적헌금** |
| 오수향, 박승은, 한상철권덕기, 서민규 | 서민규 | 강일구 | 김학순(멀티미디어) 김한진(장학) |
| **총액 1.406,00€** = 926,00(예배당) + 480,00(온라인) |